

국어교육과 가치의 문제

이 삼 형
(한국교육개발원)

目 次

- | | |
|--------------------------|------------------|
| 1. 문제 제기 | 3. 사용 언어와 가치의 문제 |
| 2.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와 가치의 문제 | 4. 언어와 언어사용 교육 |
| 2-1.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 | 5. 국어교육의 가치 |
| 2-2.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와 가치의 문제 | 6. 맺음말 |

1. 문제 제기

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들어 높아지고, 그에 따라 국어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물론 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어교육이 해방 후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여 왔고, 또한 국어교육을 연구하는 학회만도 여러 개가 있어 국어교육에 대한 논문이 활발히 발표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진술이 새삼스럽고 이상하게 들릴 줄 모른다. 그러나 최근의 국어교육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의 국어교육에 대한 논의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새로운 양상을 한 마디로 말하면 국어교육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국어교육의 학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기존의 국어교육에 대한 논의와 구별되는 점이다.”

이처럼 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논의가 활발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체로 국어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있다고 본다. 여기서 새로운 인식이란 국어교육이 언어사용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언어사용에 대해 과정적 접근(process approach)을 말한다. 물론 국어교육이 언어사용 교육이라는 인식은 1차 교육과정 이래 국어교육의 변함없는 목표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 국어교육의 실상을 보면, 언어사용 교육에 대한 인식은 피상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어교육의 실상에 큰 충격을 준 것은 5차 교육과정의 개정과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1) 노명완(1988)은 국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로 이론화 노력의 부족을 들고 있다.

의 체계가 개편된 것이라 볼 수 있다.” 5차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교과서가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교육 현장에서 국어교육에 대한 반성과 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어교육에 큰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다.

언어사용 기능을 강조한 5차 교육과정의 관점에 대해 비판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어사용 기능을 강조한 5차 교육과정이 국어교육을 기능 교육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언어사용 기능의 강조를 기능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국어교육이 언어사용만을 강조하면, 인간의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목표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소위 ‘말만 잘 하는 사람’만을 기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처럼 국어교육이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에만 기여하고 가치로운 인간의 형성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면, 국어교육의 의미는 그만큼 작아질 것이다. 따라서 언어사용 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이 가치로운 인간 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와 숙고가 필요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국어교육과 가치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하겠다.

그런데 국어교육과 가치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국어교육의 본질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어떤 선입관이나 입장을 먼저 정하고 국어교육도 그에 맞추려는 식의 논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어교육과 가치의 문제는 국어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와 내용이 무엇인가, 한 교과로서의 국어교육이 다른 교과와 구별되는 점은 무엇이고 교육 전체의 목표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 등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논의의 출발을 국어교육 밖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교육에서 시작해야 하며, 관념적으로 또는 당위에서 국어교육과 가치의 문제를 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본고는 국어교육이 언어교육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언어와 가치의 문제는 어떻게 결부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결부되는가를 기본 틀로 하여 국어교육과 가치의 문제를 논의하려고 한다. 본고는 2장에서는 언어의 관점 중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와 가치의 문제에 대한 관련성을 살피고, 3장에서는 사용 언어로 보는 언어의 관점과 가치의 문제를 검토한다. 4장에서는 언어관에 따른 언어사용 교육의 성격을 조명해 보고, 5장에서는 국어교육과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본고의 주된 목표는 언어사용으로서의 국어교육과 가치 교육과의 관련성을 살피는 것에 있다. 따라서 어떤 가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원론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본고가

2) 4차 교육과정에서 국어교육의 목표를 표현-이해, 언어, 문학의 3개 영역으로 제시한 것과는 달리, 5차 교육과정은 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여섯 항목으로 편성하여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문교부) 교과서의 경우도 4차의 경우 문종별로 구성하였으나, 5차의 경우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영역으로 나누어 언어사용을 강조하였다.

안고 있는 한계이다.

2.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와 가치

2-1.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

언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다. 언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언어를 기호(상징)의 체계로 보는 것과 언어 활동(언어사용)으로 보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입장은 어느 하나만으로는 언어에 대하여 온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것은 언어가 본질적으로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도구이며, 인간은 의사소통을 위하여 기호(상징)의 체계를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와 언어 활동의 두 관점은 인간의 언어 생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별할 필요가 있고 또한 통합할 필요가 있다.³⁾

언어를 기호로 보는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호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먼저 넓은 의미의 기호는 다른 어떤 것을 대표하고 기호 자체 이외의 어떤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을 기호라고 한다. 기호에는 비가 올 것이라는 징후로 생각되는 구름 등과 같은 자연적 기호로부터 꿀벌에 의해 사용되는 상당히 복잡한 신호체계, 그리고 인간의 의사 전달을 위해 쓰이는 표현적 몸짓, 각종 신호 등과 같은 비언어적 신호, 그리고 인간의 의사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가 있다. 기호는 위와 같이 자연적 기호로부터 인위적 기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언어기호는 기호 중 가장 정밀하고, 체계적(體系的)이고, 관습적(慣習的)이다.

언어기호는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실현된 말(speech)과 구별된다. 언어기호는 전달의 수단이고, 말은 개인에 의한 수단의 사용이다. 다시 말하면 언어가 기호체계(code)라면, 말은 이의 기호화(encoding)라 할 수 있다. 말은 특정한 장면에서 개인이 사용한 언어라면, 언어기호는 개인을 초월하여 사회 전체의 재산이다. 언어기호는 공통체의 각 구성원들의 기억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말이 개인적이고 유동적(流動的)이라면, 언어기호는 사회적이고 고정적(固定的)이다. 대상에 대한 기호의 부여는 어떤 특별한 경우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기 위하여, 뇌 속에 표상된 지시 내용을 기호로 나타내는 것이다.⁴⁾ 이것이 관습화하여 전승될 때 언어기호가 된다.

3) Saussure는 언어 기호와 언어 활동을 모두 말하고 있다. 그는 랑그(langue), 파롤(parole), 랑가쥬(langage)를 구별하고 있는데, 랑가쥬가 언어 활동이고 랑그가 언어 기호이다.

4) 대상에 대한 기호의 부여에 대해서는 이용주(1990)를 참조할 것.

언어를 기호 체계로 보는 관점에서의 언어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언어 기호는 심리적인 실재이다.
- (2) 언어는 초개인적인 것이다.
- (3) 언어는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며 특정한 지시 내용과 연합되어 있는 사회적 관습이다.
- (4) 언어는 우리 심리 내용을 표현하고 그것을 상호 전달하는 수단이요 도구다.

2-2.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와 가치의 문제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와 가치와의 관계는 언어기호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Saussure는 발화 청취의 과정을 랑가쥬(langage)라 하고, 언어활동의 순행을 발신자의 뇌 속에 의식 사실(개념)이 언어기호의 표상(청각 영상)에 연합하고 이것이 발성 기관을 통하여 발화되고, 수신자는 귀에서 뇌로 청각영상이 전달되고 뇌 속에서는 이 영상과 그에 상응하는 개념과의 심적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랑가쥬(언어활동)는 다시 랑그(langue)와 파롤(parole)이라는 두 측면을 갖고 있다고 하고, 랑그를 파롤보다 중요시하고, 랑그를 언어라고 했다. Saussure에 따르면 랑그는 언어활동 능력의 사회적 소산이며, 그 언어 공동체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속에 저장되어 있는 어휘와 문법이다. 랑그는 사물과 명칭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concept)과 청각 영상(image acoustique)을 결합한다고 한다. 개념과 청각 영상과의 결합을 기호(signe)라고 부르며, 개념을 소기(signifié)로, 청각 영상을 능기(signifiant)로 대체하여 이 상호 환기 작용을 한다고 했다. Saussure는 '나무'가 기호로 불리우는 것은 '나무'가 <나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랑그는 소기와 능기 전체를 가리킨다고 했다.

Saussure처럼 언어기호인 랑그를 개념과 청각영상의 결합이라고 본다면, 언어 기호 자체에 가치의 개념이 포괄된다고 볼 수 있다.⁵⁾ 왜냐하면 개념은 지시 대상에 대한

5) 여기에서 말하는 가치는 Saussure의 언어 가치(linguistic value)와 구별된다. Saussure가 말하는 언어 가치는 언어 체계 속에서 갖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가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고 한다.

1. 가치를 결정해야 하는 것과 교환될 수 있는 것으로 닮은 것이 아니 것
2. 가치를 결정해야 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으로 닮은 것

예를 들면, 만원 짜리 돈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1)그 돈을 다른 사물 예컨대 쌀의 어느 양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것, 2)같은 체계에 속하는 어떤 것, 예컨대 미국 돈 몇 불과 교환할 수 있는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낱말의 가치도 그 낱말이 이러이러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고, 그 낱말과 대립될 수 있는

뇌 속에서 일어나는 표상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감정과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Saussure의 언어기호는 사물을 제외하고 있다. 그는 언어기호는 하나의 사물과 하나의 명칭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과 하나의 청각영상을 결합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런 관점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있다. 즉 그는 언어기호를 정의할 때 제외시켰던 사물을, 언어기호의 자의성을 설명하면서 다시 도입함으로써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⁶⁾

Saussure와는 달리 Ogden & Richards의 '기본 삼각형'은 사물을 설명에 도입시키고 있다. 상징(symbol), 지시(reference) 또는 사상(thought), 사물(referent)을 정점으로 하는 기본 삼각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상징과 사물과의 관계이다. 상징과 지시, 지시와 사물과의 관계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상징과 사물과는 점선으로 되어 있다. 이는, 둘은 하등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며, 둘의 관계는 누군가가 상징에 의하여 어떤 사물을 대표했을 때 비로소 생긴다. 상징과 사상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지배한다. 여기서 사상은 심리 내용(mental content)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순전히 심적 현상이다. 상징과 지시 또는 사상을 분리해서 볼 때, Ogden & Richards의 상징(어) 자체에는 어떠한 가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Saussure와 Ogden & Richards의 기호관에서 누구의 기호관을 택하느냐는 어떤 기호관이 언어 사실을 잘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다.

언어기호는 심리적인 것이며, 초개인적인 것이며, 사회적 관습이며 의사 전달을 위한 도구이다. 또한 그것은 현실적인 담화(談話)와는 명백히 구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언어기호와 가치와의 관계를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언어 기호는 지시내용과 연합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소위 진리치(眞理値)와 무관하다. '연필'이라는 언어 기호는 이것이 지시하는 대상과의 관계는 사회적 관습에 의해 연합되어 있다. 어원적으로 이것이 유연적(有緣的)이었거나 무연적(無緣的)이었거나를 막론하고 기호와 대상의 관계는 관습에 의해 전해오는 것이다. 또한 그 기

다른 낱말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語 A의 가치는

1.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즉 어떤 개념과 교환될 수 있는가와
2. 어 A와 대립되는 다른 어와의 비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Saussure의 언어 가치는 언어를 하나의 구조로 보고 그 체계 속에서 다른 어와 관련하여 그 어가 가지는 의미의 차이를 말한다.

6) 이를 Benveniste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Saussure--필자)는 언어기호의 성질은 자의적인 것이라고 확인하는데, 그 이유는 시니피앙이 시니피에와 현실에서 아무런 자연적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추론은 제 3의 용어 즉, 최초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용어에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은밀히 의존했다는 점에서 잘못되었음이 분명하다. 제 3의 용어란 바로 사물 그 자체, 즉 현실을 가리킨다."(P. 66)

호는 사람들이 그 기호가 가리키는 사물을 지시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고안한 것이다. 따라서 기호와 그것이 지시하는 내용과의 관계는 진(眞)도 위(僞)도 없다. 그러나 기호가 음성을 통해 실체화되면 그것은 진과 위가 문제가 된다.

1. 어머니 : 이것이 무엇이지?

아이 : 연필.

아이들에게 새로운 말을 가르칠 때 어머니들은 흔히 사물의 이름을 말해 보도록 한다. 1에서 어머니가 연필을 가리키며 물었을 때 아이가 대답한 것이라면, 그 때는 眞이다. 그러나 연필이 아닌 막대기를 갖고 물었을 때 1과 같이 답했다면, 그것은 僞다. 이렇게 진위(眞僞)의 문제는 현실적인 발화 상황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필'이라는 말 자체는 진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시하는 내용을 나타내기 위한 기호이다.

'좋다, 예쁘다, 즐겁다' 등의 형용사는 가치 판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형용사도 기호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다만 현실적 담화에서 개인적인 심적 태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며,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과 지시 내용이 좋고 좋지 않은 것, 예쁘고 예쁘지 않은 것이 있을 뿐이다. 단어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나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 좋고, 좋지 않은 것이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소위 완곡어법(婉曲語法)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완곡어법이란 불쾌하거나 난처한 것을 실제보다 더 듣기 좋게 또는 적합하게 하는 말로써 표현하는 일이다. 그러나 완곡어법으로 불쾌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어의 불쾌한 함축은 단어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변소'라는 말을 보자. 이 말에서 오는 불결하다는 느낌은 '변소'라는 말이 불결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변소라고 불리는 곳이 불결하기 때문인가 생각해 보자. '변소'라는 말 자체가 불결한 것이 아님은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도 바꾼 말이 역시 불결한 느낌을 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본래의 말을 바꿔친 말이 어차피 다시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영어에서 '화장실'을 가리키는 말이 그렇게 많다고 Leech(1975)는 말하고 있다.⁷⁾

언어기호의 가치 중립성을 어휘 목록의 입장에서 보자. 한 나라의 어휘 목록 전체는 어떤 특정한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단지 언어사용자들이 가치 중립적인 어휘 목록을 갖고 사용자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7) Leech가 영어에서 화장실을 가리키는 말들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lavatory, privy, water-closet, toilet, clockroom, restroom, comfort station) 김광해(1990)는 변소의 유의어를 28 개나 제시하고 있다. 그 몇 개를 들면 다음과 같다. (뒤통, 화장실, 서각, 정방, 축간, 축실, 작은집, 똥독간 등)

다. 우리는 '공산주의'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 보면 그 말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다. 즉 '공산주의'라는 말은 특정한 사회, 경제체제를 일컫는 말이지 그 말 자체가 가치 판단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말 자체에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면, 이 말에 호감을 갖고 사용하는 사람과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음을 설명하지 못한다. '공산주의'라는 말에 좋고, 나쁘고 하는 감정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의 체험이나, 교육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호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흔히 비어(卑語)나 속어(俗語)나 하여 기호 그 자체가 나쁜 말이라고 하여 써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언어 기호는 우리가 흔히 비어나 속어라고 하듯이 점잖치 못하거나, 천하거나, 지속한 말이 있는 것이 아니다.

2. 귀여운 내 새끼.

'새끼'는 흔히 욕이거나 속어라고 하여, 좋지 않은 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귀여운 자기 자식에게 말할 때 흔히 2와 같이 말한다. 이런 경우 '새끼'가 비속어가 아님은 물론이다. 원래부터 나쁜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이다. 나름대로 담당하는 역할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는 특정한 가치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발신자의 입에서 발될 때 비로소 가치의 문제가 개입된다는 것이다.

3. 사용 언어와 가치의 문제

언어를 기호 체계로 보는 입장과는 다르게 사용에 중점을 두고 보는 견해가 있음을 위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는 추상적인 것으로 사전 등을 통해서 만이 관찰할 수 있지만, 현실의 경험에서는 언어는 개인의 언어 행위라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언어를 사용에 중점을 두고 보는 입장은 Saussure의 용어를 빌린다면 랑가쥬(langage)를 언어라고 보는 입장이다. 우리는 보통 랑가쥬를 언어 활동이라고 번역한다. 언어 활동은 다양한 인간 활동 중의 한 생활 양식이다. 즉 언어를 본질적으로 인간의 한 활동이라고 보는 이 관점은 행동주의적 언어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언어 사용을 발신자의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심리 내용을 표현 전달하여 타인을 감화하여 자신이 목적하는 바대로 반응을 야기하고자 하는 유목적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언어 사용을 수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발신자에 의해 표현, 전달된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거기에 적절히 반응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언어를 규정하면 대체로 다

음과 같다.

- (1) 언어(활동)는 상징을 이용하여 인간의 심리 내용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인간의 행동이다.
- (2) 언어(활동)는 화자와 청자를 전제로 하는 유목적적인 행동이다.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가 가치 중립적이라면, 발화된 언어는 발화 대상과 수신자에 대해 발신자의 개인적인 구체적인 감정과 태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가치가 개입된다.

- 3. 이 연필은 좋다.
- 4 (1) 누님 오셨어요.
- . (2) 누나 왔어.

3은 발화 대상인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발신자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대상에 대한 발신자의 가치 판단을 발화한 것이다. 4는 수신자에 대한 발신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4(1)은 '누나'라는 대상에 대해 예절을 최대한 지켜 발화한 것이고, 4(2)는 예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다움이나 반가움을 나타내는 발화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발신자의 수신자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다르게 발화되는 것이다.

발신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도 발화가 달라진다.

- 5 (1) 철수가 영식이를 때렸어요.
- (2) 영식이가 철수에게 맞았어요.

사건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발신자의 태도에 따라서는 같은 사건이나 대상이라도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5의 발화가 가리키는 사건은 하나이다. 그러나 발신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1)과 (2)가 선택된다.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2)의 경우는 영식이와 가까운 사람이 영식이에 초점을 맞추고 발화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 6 (1) 광주 폭동
- (2) 광주 항쟁

6은 발신자가 특정 대상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발화하며, 발신자의 관점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표현되느냐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폭동'과 '항쟁'이란

한 단어의 차이가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르고, 그에 담겨 있는 가치관의 차이는 엄청난 것임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신자가 하는 모든 발화는, 대상과 사건에 대한 발신자의 가치 판단이 개입된다. 그리고 그 가치 판단은 문장의 형태, 단어, 어미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수신자의 입장에서 발화에 담긴 발신자의 의도나 가치는 그 발화의 이해에 필수적이다. 수신자가 발신자의 발화를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언어 형식에 의해서 표현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발신자의 의도 및 발화에 담긴 발신자의 감정과 가치까지 이해해야 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7. 아들 : 어머니 밥 있어요?

어머니 : 밥을 아직 안 먹었구나. 곧 상 차려줄게 기다려라.

7의 발화는 식사 때를 지나 집에 돌아온 아들과 어머니의 대화이다. 아들의 발화에서 언어 형식에 의해 표현된 의미는 밥이 있느냐를 묻는 의문문이다. 그러나 아들의 발화를 듣고 어머니는 아들이 식사를 못 해 배가 고프다는 사실과 밥을 달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어머니는 아들의 발화에 담긴 아들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했고, 따라서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는 의사 소통이 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신자는 발화에 담긴 발신자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제대로 의사 소통이 이루어진다. 6에서 이미 보았듯이, 한 사건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발신자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수신자는 화자의 발화에 담긴 가치를 파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발신자가 말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발화된 언어는 의미 자체를 넘어, 의미 외에 가치가 개입된다. 발화된 언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발화의 맥락(context)과 상황(situation) 안에 있기 마련이다. 상황속에서의 어(語)나 문(文)은 상황에 의해 그 의미나 감정이나 태도 등이 결정된다. 사전을 보면 하나의 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풀이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언어활동에서의 의미는 문맥에 의해서 비로소 분명해진다. 문맥 속에서 語는 의미가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특별한 감정이나 태도 등이 부착된다. 이것은 의미가 아닌 다른 것의 연합에 의해서 발신자의 감정과 태도가 표현되는 것이다. 이것은 의미 자체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도, 의미의 뉘앙스를 부여한다. 이를 흔히 문체론적 가치라 한다.

8. 민주주의, 공산주의

8과 같은 말들은 그 어(語)의 의미 외에 감정가치를 가지고 있다. 어떤 어는 그

사회에서 대체로 공통된 감정가치를 갖는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공산주의'라는 말에는 대체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보통이다. Leech는 이런 것을 연상적 의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연상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사회집단을 가리키는 말을 들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라는 국명(國名)은 근래에 와서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남한에서는 대체로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국명이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미국'이란 국명은 매우 혐오스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국명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사용으로서의 언어에는 발신자의 측면이나 수신자의 측면이나 가치의 문제가 개입되고, 그것이 의사 소통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

4. 언어와 언어사용 교육

우리는 2장에서 언어를 기호 체계로 보는 입장에서 언어를 살폈고, 그 입장에 터해서 언어와 가치의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또한 3장에서는 언어를 언어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물론 이러한 언어관 이외에 다른 각도에서 언어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각 언어관에 따라 언어사용 교육의 성격도 달라지리라 생각된다.

언어를 기호 체계로 보는 입장에서의 언어사용 교육을 생각해 보자. 언어를 기호로 보는 입장에서는, 언어 기호와 그것이 지시하는 지시 내용과의 관계와 기호 체계가 언어사용 교육의 중심 과제이다. 언어기호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의미와 다른 의미들과의 차이는 무엇인가하는 것들이 언어사용 교육의 기본이 된다. 또한 어휘소 하나하나를 넘어 담화 차원에 이르는 기호들의 체계가 언어사용 교육의 기본이 된다.

9 (1) 손을 물로 씻어라.

(2) 손이 모자란다.

(3) 그와 손을 끊겠다.

10. 평소에 공부 안 하더니, 꼴 좋게 시험에 낙방했구나.

9에서 '손'이란 어(語)는, 9(1)에서는 '사람의 팔목 아래 달린 부분'을, 9(2)에서는 '노동력'을, 그리고 9(3)에서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밖에도 '손'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들 의미는 모두 관습적으로 전해 온 의미이다. 관습적으로 전해 온 이들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손'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손'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언어사용 교육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10에는 '좋다'는 일반적인 의미와는 달리, '좋지 않은' 감정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반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언어적 용법도 우리 언어 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용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히 효과적인 발화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의 다양한 쓰임도 언어사용 교육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위에서 살핀 '손'이나 '좋다'에 대한 의미는 사전에 있는 사전적 의미이다. 그러나 사전에 없으면서도 관습화된 의미가 있다.

11. 아 고 녀석 밍게 생겼구나.

위의 9와 10에 쓰인 용법은 사전에 등재된 용법이다. 그러나 11의 '밍다'는 위의 '좋다'와 비슷한 용법이면서도 사전에 없다. 그러나 금기어와 관계가 있는 이런 용법은 국어에서 관습적으로 전해오는 용법이다. 따라서 사전에 등재해 있지 않더라도 언어사용 교육에서는 가르쳐야 하는 용법임에 틀림없다.

언어를 언어 활동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언어사용은 발신자의 지적(知的)이며 감정적(感情的)인 심리 내용을 발신자에 전달하여 발신자가 원하는 바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언어사용 교육은 기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사용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가르치는 것이 중심 과제가 될 것이다.

언어사용에서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언어 기능과 용법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 언어 기능과 용법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지만 여기서는 Ogdan & Richards의 지시적(指示的) 기능과 환정적(喚情的) 기능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⁸⁾ 물론 이 둘은 현실적인 발화에서는 서로 얽혀서 동시에 작용하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주된 기능을 갖고 구별하는 것으로 한다. 지시적 기능이란 발신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과학논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논문에서는 지식이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개념의 정확한 사용, 모호한 표현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언어사용이다.

환정적 용법의 언어사용은 발신자의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해서 수신자를 감화하여 발신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언어적 용법이다. 따라서 발신자는 수신자에 대한 태도, 지시물에 대한 태도를 적절하게 표현해야 하며, 지향된 효과의 축진을 위해서 적절한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

12 (1) 그만 놀고 공부 좀 해야지.

(2) 그만 놀고 공부하라니까.

8) Ogdan & Richards는 이 둘의 언어 기능을 '1)지시의 상징화, 2)청자에 대한 태도의 표현, 3)지시물에 대한 태도의 표현, 4)지향된 효과의 축진, 5) 지시의 지지'와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12를 아버지가, 공부는 하지 않고 놀고만 있는 아들에게 하는 발화라고 가정해 보자. 처음에는 12(1)처럼 타이르며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위압적으로 말해야 발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2(2)가 (1)보다는 위압적인 표현이다. 발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말하는 것이 언어의 효과적인 사용임은 물론이다.

효과적인 언어사용은 발화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어휘 및 문장을 선택해야 한다.

13 (1) 저는 철수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저는 철수가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3' 철수를 우리 반 반장으로 추대합니다.

13의 (1)과 (2)가 철수에 대하여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도, 13' 와 같은 발화와 연결될 때는 (2)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 된다.

언어의 효과적인 사용은 문학 작품의 언어 용법까지 확장해서 말할 수 있다. 즉 발신자는 수신자나 지시물에 관심이 있기보다 전언 그 자체에 관심이 있고, 전언 자체를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할 수 있다. 이를 리치는 미적 기능이라고 한다. 이미 유명한 예가 되어 버렸지만 다음의 동요를 보자.

14. 토실토실 밤토실 주워서 울태야

13에서 '밤토실'에 주목해 보자. 이미 이용주(1986)에 의해 지적된 바이지만 '토실'은 부사 '토실토실'을 형성하는 어근이다. 이 어근이 '밤'이라고 하는 명사에 접미되어 '밤토실'이 되는 것은 국어의 일반적인 문법을 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국어의 문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알밤을' 등으로 고치는 것은, 이 동요의 뜻을 없애는 것이 된다. '밤토실'은 동요에서 그 반복에서 오는 시적 효과를 높이는 효과적인 표현이며, 이런 표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언어를 사용하는 효과적인 언어사용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언어사용이 창조적인 언어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언어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사용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용과 가치가 개입되어야 한다. 발신자가 발화한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틀린 내용이면 그 발화는 효과적인 발화가 될 수 없다. 수신자의 입장에서 이든 마찬가지다. 발신자가 틀린 내용을 발화했음에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효과적인 언어사용을 한 것이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상과 사건에 대한 바른 가치에 입각한 발화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효과적인 언어사용이 될 수 없다. 수신자의 입장에서 이든 마찬가지이다.

5. 국어교육과 가치의 문제

국어교육과 가치 교육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언어관과 그에 따른 언어사용의 의미를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어교육과 가치 교육의 관계를 살피기로 하자. 국어교육과 가치 교육의 관계에서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은 국어교육에서 가치 교육은 배제해야 하는가 또는 가르쳐야 하는가, 그리고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는 여러 개의 교과가 있으며, 학교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교육의 일반 목표가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각 교과의 학습을 통해서 학교 교육이 이루고자 하는 교육의 일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국어교육도 전체 교과를 이루는 하위 교과의 하나이므로 마땅히 교육의 일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국어교육이 언어사용 교육이라는 점에서 가치의 문제와 결부되기도 한다. 국어교육이 언어사용 교육이고, 언어사용은 본질적으로 발신자의 가치가 개입되고, 수신자는 그 가치를 인식해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면, 국어교육은 가치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국어교육이 가치 교육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국어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가치는 어떤 가치인가가 문제이다. 국어교육이 가치 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아무런 가치나 가르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국어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가치는, 국어교육이 하나의 교과이고 교육의 일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명백하다. 국어교육이 학교 교육의 한 교과이므로 가치교육과 결부된다는 점에서는 국어교육에서의 가치 교육은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육법이나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가치를 수용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국가 수준 또는 사회 일반에 의해 합의된 가치를 국어교육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일반적인 경우는 교육과정에 반영된 가치관을 국어교육이 교육목표로 하는 것이다. 국어교육이 어떤 가치를 가르칠 것이냐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다른 교과에서 결정된 가치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도 된다. 예를 들어 국어교육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내용으로 다루고자 할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국사 교과에서 해석하고 판단한 가치를 수용해야 한다. 소위 '동학 농민 운동'의 경우, 이는 5차 국사 교과서의 용어이나 5차 이전의 교과서에는 '동학 혁명(3차), 동학 혁명 운동(4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⁹⁾ 이와 같은 변화에는 그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한 것이고, 이의 변화에는 가치의 문제가 개입된 것임은 물론이다. 이런 경우 국어교육에서는 국사 교과서에 준해서 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결국 국어교육은 국사 교과에서 결정된 가치를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어교육이

9) '역사교육'(역사교육 연구회) 제 47집에는 근대사 연구와 역사교육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가치의 문제에서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는, 국어교육이 소위 제도 교육으로 지배 이데올로기와 밀착되어 이를 전파하는 수단이 되기 쉽다. 실제로 3차 교육과정에는 가치관 교육이 중요시되었고, 그에 의한 국어 교과서에 새마을 운동을 제재로 한 글이나, 경제 발전을 제재로 한 글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일 등은 이를 잘 드러내는 예라 할 수 있다.

국어교육이 학교 교육의 한 교과로서 교육법이나 교육과정에 규정한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국어교육이 언어사용 교육이라는 점에서 가치와 결부되는 것은 가치에 능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언어사용에서 결부되는 가치는 어떤 특정한 가치와 무관하며, 사용된 언어에 들어있는 가치를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15. 폭력을 사용하는 자는 나라의 적이다.

15는 정원식 국무총리가 외대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는 얼마 뒤에 길거리에 붙었던 현수막이다. 우익 단체에 의해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 현수막의 내용은 현 정권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행동 및 그들을 국가의 적으로까지 매도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대학생들의 행동의 정당성이나 그런 행동의 원인과 결과 등을 논의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15와 같은 표어는 어떤 특정한 가치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수신자는 이 표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올바른 언어사용이 아니다. 이런 표어 뒤에 숨어 있는 가치관을 파악하고 그 가치관의 정당성을 파악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언어교육인 국어교육도 이런 표어의 글자의 뜻만을 해독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음은 물론이다. 15의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이런 점이 분명히 국어교육에서 환기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국어교육이 가치 교육과 관계되는 다른 측면을 보자. 대화를 주고 받을 때에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대화 참여자 각각이 서로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고자, 아니면 적어도 공통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여 나가야 한다는 원리가 작용한다. 이를 Grice는 협동의 원칙(cooperative principle)이라고 하며 이를 4가지의 격률로 제시하고, 그 하위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5. 회화의 격률

- (1) 양의 격률 :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라.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 (2) 질의 격률 :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말하지 말라. 적절한 증거를 가지고

10) 교육과 이데올로기 관계는 윤구병이 엮은 '교과서와 이데올로기'(천지, 1988)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있지 못한 것은 말하지 말라.

(3) 관계의 격률 : 연관성이 있도록 해라.

(4) 양태의 격률 : 애매한 표현을 쓰지 말라. 중의적인 표현을 쓰지 말라.
간결하게 말하라. 순서에 맞게 말하라.

대화를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에 의해 필요한 협동의 원칙과 회화의 격률들은, 언어사용 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간, 협동하는 인간을 형성하는 데 국어교육이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바람직한 인간 형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언어사용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국어교육이 가치 교육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매우 크고 중대할 수 있다. 언어사용 교육 자체가 협동 학습(cooperative learning)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어교육이 어떤 가치를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인간 형성이라는 교육 일반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어교육과 가치 교육에 관련하여 생각해 볼 다음 문제는 국어교육에서 가치 교육의 위상이다.

각 교과는 다른 교과들과 구분되는 교과 고유의 목표와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교과들 사이에 구별되는 점이 있어야 각 교과는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서 그 존재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국어교육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서 고유의 목표와 내용이 있어야 하며, 국어교육을 통하여 학교 교육이 이루고자 하는 일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러면 국어교육이 다른 교과와 구별되는 고유의 목표와 내용은 무엇인가? 국어교육의 목표는 '언어사용 능력의 신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육법과 교육 과정에서 명시되어 있고, 국어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바라고 여겨진다. 국어교육이 '언어사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라면, 국어교육의 내용은 당연히 언어사용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국어교육학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국어교육학의 당면 과제라 할 수 있다.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국어교육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4장에서 살핀 언어 교육의 모습들이 국어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어쨌든 국어교육이 다른 교과와 구별되는 점은 언어사용 교육이고, 그것이 국어교육 고유의 목표와 내용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국어교육에서 가치의 교육은 국어교육의 고유한 목표와 내용이 될 수 없다. 가치 교육이 국어교육의 고유한 목표가 될 수 없다는 말은, 가치 교육이 국어교육의 목표가 아니라는 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고유한 목표는 국어교과가 다른 교과와 구별되는 점을 말한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치 교육은 국어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따라서 가치의 문제는 국어교육에서 배제할 수 없고 중

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가치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은 국어교육의 중심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러면 국어교육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치의 문제가 개입하고 가르쳐야 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이 문제는 효과적인 언어사용을 위해서 내용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개입시키느냐 하는 국어교육이 풀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단지 여기서는 내용과 가치는 효과적인 언어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에 한한다는 점과 언어사용의 성격상 어떤 가치관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형태는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는 것으로 그친다.

5. 맺음말

본고는 언어사용 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이 과연 말만 잘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처럼 가치 교육과 무관한 것인가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출발했다. 그리고 국어교육과 가치의 문제를 논할 때, 당위나 선입관을 갖고 논의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 국어교육의 기본 전제인 언어사용 교육이라는 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본고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어교육이 언어사용 교육이므로 언어와 가치의 문제를 살피려고 했다.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은 대단히 다양하나,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와 활동으로서의 언어라는 두 관점으로 나누어 논의했다.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라는 관점에서는 언어기호는 심리적 실재이며 의사 소통의 도구이다. 만약 언어 기호 자체가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감정과 가치를 포함한다면 관습화되거나 공유될 수 없다. 따라서 언어 형식은 가치 중립적이다. 그러나 실재 발화된 경우는 발신자의 감정과 가치가 개입된다. 언어 행위 자체가 가치 판단에 의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두 가지 언어관에 따른 언어사용 교육의 주안점을 살펴보았다. 언어사용 교육은, 언어사용이 가치와 본질적으로 결부되기 때문에 가치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것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어교육과 가치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국어교육에서 가치 교육은 교육 일반의 목표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과 언어사용 교육이 본질적으로 가치의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그 관련성을 말했고, 그 관련성이 아무리 깊다 해도 국어교육이 고유한 목표와 내용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가치 교육은 국어교육의 고유한 목표가 될 수 없음을 보였다.

그러나 본고는 가치의 문제가 국어교육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개입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따라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머무르고 말았다. 언어사용에서 내용의 문제와 함께 국어교육이 풀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본고가 안고 있는 한계이다. 앞으로 꾸준한 논의가 요청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參考 文獻 >

- 문교부(1989), 고등 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 해설.
- 김수업(1989), 국어교육의 원리, 청하.
- 김종택(1990), 국어 화용론, 형설출판사.
- 김태자(1989), 발화분석의 화행 의미론적 연구, 탑출판사.
- 노명완(1988), 국어교육론, 도서출판 한샘.
- 노명완 외(1988), 국어과 교육론, 갑울출판사.
- 이용주 외(1990), 국어의미론, 개문사.
- 이울환 외(1985), 국어의미론, 현문사.
- 이익환(1986), 의미론 개론, 한신문화사.
- 이정민 외(1986), 언어과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 지성사.
- 장석진(1989), 화용론 연구, 탑출판사.
- 최현섭 외(1984), 국어과 교육론, 선일문화사.
- 김대행(1990), 국어교육과 언어, 사용, 교육, 사대논총 제 40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1990), 언어사용의 구조와 국어교육, 국어교육 71.72 합병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용주(1975), 국어교육에 있어서의 본질과 비본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논문집 12.
- (1986), 초, 중, 고교에서의 언어지식교육, 교육개발원 5차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세미나.
- (1988), 관습화된 도구사용의 교육, 선청어문 16·17.
- Benveniste, E., 김현권 역(1988),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한울문화출판.
- Leech, G. N. (1974), Semantics, Penguin Books Ltd.
-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gman.
- Levinson(1983), Pragmatics, Cambridge.
- Ogden & Richards(1966), the Meaning of Meaning, London.
- Saussure, F. de(1983), Cours de Linguistique General, Paris.
- Taylor & Taylor(1990), Psycholinguistics, Prentice-Hall International.
- Ullman, S. (1962), Semantics, Oxford.